

# 투명 인간을 살린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자치CEO



우승희  
영암군수

올해 2월 전라남도 영암군은 15살 특별한 청소년을 영암군민으로 맞았다. 한국인 아버지와 베트남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김나영(가명) 양이다.

나영 양은 부모의 이혼으로 3살쯤 베트남으로 보내졌다. 그곳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마친 후 3년 전인 2022년 한국에 돌아왔다. 더 좋은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영 양은 어머니와 함께 영암군에서 살면서, 주소는 아버지가 있는 충남의 한 지자체에 뒀다. 경제적인 형편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암군은 2024년 말, 충남 한 기초지자체 복지공무원의 연락을 받았다. 나영 양이 충남에 거주하지 않으니 영암에 살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것이었다.

통합사례관리로 위기가정을 돌보는 영암군은 수소문 끝에 나영 양을 찾았다. 한국어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어머니의 경제적 어려움도 확인했다.

영암군 통합사례팀은 수 차례 상담과 영암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진

행했다. 그 결과 나영 양은 초등 학력을 인정받았고, 올해 3월 중학교에 입학했다. 또한 영암군은 긴급 생계지원과 기초수급자 신청, 주거 이전 등을 지원했다.

5월 초 영암군은 반듯하고 예쁜 베트남어로 쓰인 나영 양의 감사 편지를 받았다. 편지는 “제게 여러 번 오셔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시는 영암군청 사례관리사 선생님께 고맙습니다.”는 내용이였다.

나영 양은 편지에서 “저는 집 밖에 나가지 않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않았습니 다. … 한국말을 하지 못해 밖에 나가기 무섭고, 학교 다닐 형편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로 당시 상황을 적었다. 그러면서 “…학교에도 가고 외출도 하면서 화장품도 사고 친구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영암군으로 이사 온 후에 학교에 가고, 집도 생기고, 생활비도 주셔서 우리 가족은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며 변화된 모습을 표현했다. 자신이 받은 복지를 다른 아이들도 받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충남 한 지자체 공직자의 의문과 전화 한 통이, 전화 한 통도 놓치지 않는 영암군 통합사례팀의 진심과 열정이, 위기의 청소년에게 12년 만에 한국인의 권리를 찾아줬다. 한 청소년과 어머니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영암군 공직자들의 노력이 빛난 사례다.

영암군 통합사례관리는 위기가정 사

례관리와 아동 사례관리를 연계한 혁신 사례다. 위기에 처한 군민 즉, 수요자 중심의 적극 행정이다. 행정이 지역자원의 종합적 협력 네트워크

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 탈출을 돕는 사람 중심의 복지체계다. 영암형 통합사 례관리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개선되길 기대한다.

한편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나영 양과 같은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살지 않는 사람들,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 교육과 기초생활 등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어른은 물론이고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투명인간의 삶을 살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도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제2, 제3의 나영 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인으로서 법률적인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다문화가정은 이미 우리의 삶이다. 저 출생과 지방소멸 시대 계절근로자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농촌경제는 운영되지 않는다. 인구 5분의 1이 이주민인 영암군이 이주민지원팀을 신설해 운영중인 이유다. 현장의 특별하고 다양한 사례가 보편적으로 정착되도록 이주민 정책이 개방되어야 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광역단위 국적 취득도 검토할만 하다.

기고 | 이원근 광주시 동구 주민복지국장



# 장애를 넘어 공감으로 하나 되는 인문도시 광주 동구

필자는 연초 주민복지국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며,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더불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 그동안 광주광역시 동구는 고령·여성·아동의 대표적인 ‘3대 친화도시’로 위상을 확고히 다지며,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나눔과 소통이 활발한 공동체’라는 비전을 성공적으로 구현해 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문득 질문이 생겼다. 과연 우리 동구에서 장애를 가진 주민들은 얼마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까? 더불어 이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는 단순히 물리적 시설이나 제도적 지원의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가 얼마나 깊은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기도 했다.

3월22일, 2025년한국프로야구개막식에서 필자가 특히 반가워하는 이들이 개막 선언을 했다. 바로 전국 유일의 발달장애 청소년으로 구성된 E.T 야구단(East Tigers) 단원들이 그 주인공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T 야구단’은 동구의 대표적인 장애인 친화 정책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E.T 야구단 프로젝트는, 동구만의 특화된 고향사랑기부금사업으로 현재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야구라는 대중적인 스포츠를 통해 장애 청소년들이 자신감을 키우고, 팀워크를 배우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어떻게 존중하고 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육의 장이자 공감의 현장이 되고 있다.

동구는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를 허무는 인식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최근 광주 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자체 제작한 장애 인식 개선 영화 ‘담담하다 못해

시시콜콜하게’가 대표적이다. 이 영화는 장애인을 특별한 존재가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평범한 이웃으로 자연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을 담고 있다. 정광식 감독과 장애인·비장애인 배우들이 함께 만든 이 작품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됐으며 제14회 광주독립영화제 상영작으로 선정돼 6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상영을 앞두고 있다.

이처럼 예술과 문화를 통한 인식 개선 노력이 바로 이곳, 동구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장애 친화적 가게 발굴 지원, 장애인 공감매트 무료 대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의 궁극적 목표는 장애인을 위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문화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 민선 7·8기 출범 이후, ‘사람 중심의 인문도시’, ‘나눔과 소통이 활발한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포용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이 공감하는 도시. 그로 인해 사람냄새 가득한 ‘인문도시 동구’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필자가 던졌던 질문, “동구의 장애인들은 행복한가?”에 대한 해답이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려가야 할 미래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결국, 지역 공동체의 행복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이다. 동구는 앞으로도 E.T 야구단과 같은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이 야말로 우리 동구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진정한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가장 확실한 길임을 확신한다.

## 독자투고

‘온라인 카지노 사이트, 가입만 해도 게임머니 충전’, ‘오픈이벤트 오늘 접속하면 무제한 환전 혜택 제공’.

최근들어 모두가 한번쯤은 인터넷 웹서핑 중 온라인 사이트에서 이러한 문구를 본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최근 SNS의 증거로 무분별한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증가된 청소년 핸드폰 보급률은 90% 이상 증가했다. 누구나 마음먹으면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청소년은 아직 가치관과 자제력이 완전히 자리잡지 않아 도박의 중독성과 손쉬운 접근성으로 인해 ‘속수무책’으로 도박중독에 빠져버리게 된다.

## 청소년 사이버 도박, 더 이상 방관할수 없다

사이버 도박 경합한 청소년 10명중 1명은 도박빚을 갚기위해 불법 대출 등 사채를 쓴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초기에는 소액의 게임머니나 포인트로 시작하지만 점차 실질적인 금전 거래와 연계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가 더이상 아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견잡을 수 없이 큰 사회적 문제로 번져버렸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정에서는 자녀와 대화

를 통해 인터넷 사용 습관을 점검하고, 학교에서는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이 더 강화돼야 한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SPO)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늘리고, 위험징후가 포착될 경우 빠르게 대응하는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에 대한 ‘무관심’을 버리는 것이다. ‘설마 우리 아이가’라는 생각 대신, 언제든지 그 유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가 말이다.

윤현민 (임회파출소 순경)

‘지역신문발전기금’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http://www.jnilbo.com)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http://m.jnilbo.com)

# 보약·홍삼은

복고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